# 꺼삐딴 리 요약

작가는 꺼삐딴 리 속 이인국의 삶과 그의 여러 사건에 대한 대처들을 자세히 보여주며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까지 기회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소설을 썼다.

이인국이 과거를 회상할때, 그 공간적 배경이 어디인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6.25 또는 소련의 진군 이후 6.25전쟁으로 인국은 점점 내려오기 때문이다.

# 구성

이인국이 브라운의 대사관으로 가는 중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간적 배경이 뒤바뀌는 역순행적 구성을 띈다.

이 소설에 대한 여러가지 감상

1. 이인국은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2.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3. 이인국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우리 사회에도 기회주의자들은 존재한다.
5. 이인국은 급변하는 상황속에서도 희망을 끈을 잡고 있으나, 역시 혼란을 느끼고는 있다.

# 여러 한자 성어

오리무중 : 앞날을 알 수 없다

점입가경 :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져간다

아전인수 : 대리인 자격으로 무언가를 해야할때 자신의 이익부터 챙긴다

조변석개 : 일관성 없이 정해진 계획을 변경한다

# 까마귀 눈비 맞아, 표현론적 해석

까마귀 / 눈비 맞아 / 희는 듯 / 검노매라 (초장)

야광 / 명월이 / 밤인들 / 어두우랴 (중장)

임 향한 / 일편단심이야 / 변할 줄이 / 있으랴 (종장)

## 시의 배경

박팽년은 세종, 문종, 단종을 따랐던 충신인데, 세조의 계유정난 이후 세조의 회유에도 불구하고-박팽년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따르지 않자, 숙청 당한다.

이때, 박팽년은 세조의 집권 과정에서의 간신들을 비판한다.

## 상징물

까마귀 : 간신 (부정적)

눈비 : 눈-계유정난 이전의 일들- 과 비- 간신으로서의 행보들 -

야광명월 : 충신 (긍정적)

기본적으로 검은색이 부정적이며, 그걸 씻어내려 버리는 것으로 드러낸다. 또한 흰색은 충신, 곧 자신과 함께한 사육신들을 뜻한다.

## 표현 방식

상징, 설의법을 사용하였다. 설의법으로 말하고자하는 것을 강조한다.

중장에서의 예로, 야광명월, 즉 밤에 밝은 달이 밤에는 당연히 어둡지 않은 사실을 되려 묻고 있다. 종장 또한 마찬가지다. “변할 일이 있느냐” 는 “변할 일이 없다”로 해석된다.